전북지역의 어촌어메니티와 즐기는 어업의 활성화

군산대학교 경영회계학부
교수 김수관

목 차

Ⅰ. 머리말

Ⅱ. 이론적 고찰
1. 어촌의 어메니티
2. 즐기는 어업

Ⅲ. 즐기는 어업의 국내외 사례
1. 국내사례
2. 국외(일본)사례

Ⅵ. 전북지역 즐기는 어업의 활성화 방안
1. 문제점
2. 활성화 방안
3. 기대효과

Ⅴ. 맺는말

Ⅰ. 머리말

어촌생활의 근거는 오래전에는 바다를 태생적으로 받아들였던 '숙명적'인 삶이 있었고, 근래에 들어서는 수산업이라고 하는 산업이 주를 이루는 '산업적' 삶이었다면, 앞으로는 어촌이라는 '자연친화적' 요소가 어촌의 삶을 지배할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과거에는 자연이 인간을 지배하였고, 현재는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고 있으나, 미래에는 자연과 인간이 상생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대적 요청을 거부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인 시각으로 근래 어촌의 모습을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과소화와 고령화, 낮은 소득, 환경파괴라는 긴급한 문제가 놓여 있어 이미 운명적 삶이나 산업적 삶도 이미 매력을 잃어가고 있으며, 도시로 그 에너지를 빼앗기고 있다는 증거가 나타난지 오래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의 에너지를 흡인하여 어촌지역의 활성화라는 과제를 풀지 않으면 안된다. 왜냐하면, 어촌이란 영해와 영토의 보전기능, 공익적 자연환경이라는 무한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가지 긍정적인 현상은 근래에 들어서 어촌을 일시적으로나마 찾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는 바로 어촌이라는 '자연환경'을 찾아 어촌에서 휴식과 위락 등으로 삶의 여유를 취하려는 현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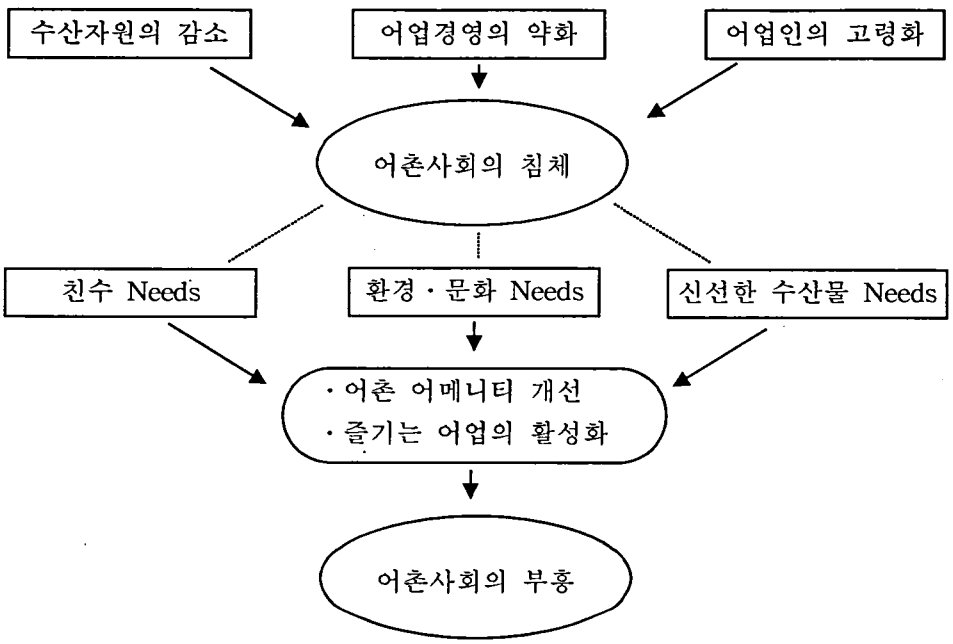
이러한 현상은 도시에서의 근무시간의 단축, 도로 및 교통수단의 발달, 가처분소득의 증가 등의 여건이 충족되고, 일상적인 도시생활을 일시적이나마 회피하고자 하는 욕구가 맞물려 일어나는 사회적 경향으로 보여진다.

이는 어촌에서 이루어져 왔던 기존의 주요산업인 어업, 양식업 등이 여러 국내외적 환경 요인으로 크게 쇠퇴해가고 있는 시점에서 어촌의 토착민들에게는 경제적인 수입의 증가와 인적교류의 기회가 되고 있어 좋은 현상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들의 어촌으로의 과다유입은 기존 형성된 어촌의 공동체의식의 파괴나 잘 보전된 자연환경 등의 훼손이 크게 우려되는 면도 적지 않다.

이런 긍정적 또는 부정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어촌의 삶을 지배할 자연환경적 삶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을 어촌의 어메니티(Amenity)개선과 '즐기는 어업'의 활성화라고 규정하고 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서 어촌의 어메니티와 즐기는 어업에 대해 우선 이론적으로 고찰해 보고, 무한한 경제·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어촌을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시키면서 어촌의 부흥을 실현할 수 있는 그의 활성화 방안을 제기해 보고자 한다.



<그림 1-1> 어촌사회의 침체와 부흥

II. 이론적 고찰

1. 어촌의 어메니티

1-1. 어메니티의 개념

어메니티(Amenity)[1]란 용어의 기원은 산업화, 도시화가 한창이던 18세기 후반 영국에서 유래되었다. 당시 영국에서는 모직공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화,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농촌에서 도시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였으며, 도시인구가 갑작스럽게 불어나자 도시환경은 극도로 악화되어갔다[2]. 결국, '어메니티 운동'이란 '인간적 삶'에 필요한 환경을 갖추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1) 그의 어원은 '쾌적함', '기쁜 감정'을 표현하는 라틴어 아모에니타스(amoenitas) 또는 '사랑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아마레(amare)에서 유래되었다. 따라서 어메니티는 사람이나 풍도, 사물, 생물에 이르기까지의 폭 넓은 사랑을 의미하며, 복수의 어메니티스는 장소나 기후 등 쾌적한 환경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2) 이 시대를 배경으로 제작된 '셜록홈즈'나 '왕자와 거지' 등의 영화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수도 주변에 형성된 도시빈민들의 처참한 주거환경과 쓰레기와 진흙탕으로 뒤범벅이 된 지저분한 거리의 모습 등은 당시 환경운동자들로 하여금 어메니티운동에 나서도록 하는 계기가 된다.

영국의 대표적인 도시 계획가중의 한명인 윌리엄 홀포드(William Holford)는 'amenity'를 정의하기를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the right thing in the right place)"으로 정의[3]하였는바 이는 훼손되지 않은 자연자원의 amenity 가치를 일깨워주는 말이기도 하다.

최근들어 농촌어메니티라는 용어가 보다 많은 사람들에 의해 쓰여지고 있다. 라틴어로 '친근하다' 또는 '쾌적하다'라는 뜻을 지닌 어메니티라는 용어는 종종 '쾌적성'이라는 우리말로 풀이되기도 하나 조금은 뉘앙스가 달라 원어 그대로 쓰는 것이 관행이 되고 있다.

'농촌어메니티'란 농촌공간에 존재하는 우리에게 '친근감'을 주는 모든 소재들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결국, 농촌어메니티란 농촌공간에 존재하는 '친근하고 쾌적한 소재들'로서 그 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만족스러움과 즐거움을 선사하는 것들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개념은 어촌의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1-2. 어메니티와 지역개발

80년대 말, UR 라운드가 한창 진행 중이던 당시, 유럽에서는 농업의 새로운 보호논리, 또는 새로운 사회적 지원명분을 찾기 위해 많은 학자들과 활동가들이 새로운 개념과 논리를 개발해왔다. 농업의 다면적 기능(Multifunctionality), 공익적 기능 등은 이미 잘 알려진 용어들로서 이후에는 보다 포괄적 의미를 갖는 농촌어메니티라는 용어가 농업의 긍정적 외부효과(Positive externality)를 아우르는 개념으로서 널리 쓰이고 있다. 어업 역시 이와 유사한 개념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어업의 터전이 되는 바다 역시 농촌의 산과 들처럼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여 시장의 가격메커니즘을 통한 보상체계가 적용되기 힘들기 때문에 공공부문의 보상체계를 통해 사회적으로 필요한 만큼(Optimal)의 어메니티가 공급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논리가 농수산업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새로운 논리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이다.

농촌공간이 갖는 어메니티적 요소들을 개발하여, 농촌공간의 가치화(Mise en Valeur)를 진전시키려는 움직임은 녹색관광의 활성화, 어메니티 관련산업(Amenity-based industry)의 확산을 가져오는 것처럼 어촌이나 해안 등 수변지역의 어메니티 개발 역시 청색관광의 활성화를 가져올 전망이며, 토요휴무제의 실시 등 우리사회의 노동의 사회적 조직형태의 변화는 이와 같은 움직임을 더욱 빠르게 할 전망이다.

1-3 어촌어메티니의 성립논리

도시어메니티는 도시환경의 악화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하여 성립된 개념으로써 생

3) 전영옥, 어메니티(Amenity)가 도시경쟁력이다, 삼성경제연구소, 2003, p.4.

활환경의 종합적 쾌적성을 의미하는데, 농촌어메니티는 농촌정책의 새로운 목표로서 기존 농촌정책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최종적인 목표는 농촌어메니티 자원개발을 통해 농촌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도시와 차별되는 농촌만의 가지고 있는 어메니티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가 된다.

이러한 농촌어메티니의 차별성은 어촌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어촌이 갖는 가장 큰 기능은 수산물 공급을 통한 고급 단백질의 제공 외에도 바다가 갖는 어메니티의 요소가 풍부한 곳이다. 스킨스쿠버, 요트, 낚시 등 청색관광의 대부분은 바다를 이용하는 체험형 체류 관광이다. 또한 바다는 수변공간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해안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 도시인들이 자연경관이나 생태를 주제로 한 어메니티를 얼마나 갈구하고 있는가는 몇 가지 사례[4]를 통해 충분히 드러난다.

바캉스라는 용어를 만들어낼 줄 알았던 프랑스 사회는 청색관광, 백색관광, 녹색관광 등 관광에도 색채를 띠게 했다. 지중해와 대서양을 끼고 있는 프랑스는 광활한 연안해역과 습지를 가지고 있다. 청색관광은 바로 연안해역에서의 휴가를 의미하며, 여름철 건조기에 맞이하는 연안바다의 푸르름은 자연색 그대로를 방문객들에게 드러낸다. 휴가철 외국인들은 파리와 주요도시를 거닐고 있는 반면, 정작 프랑스인들은 이처럼 녹색 또는 청색, 백색관광을 위해 농촌으로 또는 어촌으로 길을 나선다. 이른바 생태관광의 붐인 것이다.

생태관광은 분명 지역사회에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나 충분조건이 마련되지 않은 지역사회에게는 분명 언강생심(焉敢生心)의 일일 것이다. 생태관광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다뤄야 할 문제가 있다.

생태관광의 활성화는 경제학적으로 풀이하자면 어촌어메니티를 신상품으로 해서

---

4) 전남함평의 나비축제는 이미 많이 알려진 사례이다. 청정지역에 속하는 함평에서는 나비축제 기획을 통해 지역주민 수의 20배에 가까운 60만명을 함평으로 불러모았다. 서울 근교의 놀이동산 입장료보다도 더 비싼 돈을 내면서까지 나비축제를 매개로 한 함평의 농촌어메니티는 이 곳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충분히 '지불할 의사'를 갖도록 한 것이다.

또한 양평의 더덕캐기축제. 몇 년전 산불이 발생한 임야에 몇몇 농민들이 더덕씨를 파종하고 더덕을 길러왔는데, 더덕을 수확해 시장에 팔기보다는 '더덕캐기축제'라는 농촌어메니티 행사를 통해 사람들을 불러모아 10억이 넘는 매출을 올렸다. 이들 농민들은 칼로리로서의 농산물을 생산한 것이 아니라 어메니티라는 서비스를 생산한 것이다.

그 외에도 강원도 평창지역 역시 자연을 주제로한 어메니티 산업의 성공사례로 꼽을 수 있다. 웰빙열풍에서 보다시피 우리의 소비패턴이 점점 건강과 쾌적함으로 고급화 되어감에 따라 어촌지역이 새로운 어메니티 공간으로 각광받을 확률은 크다.

어촌지역에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는 과정이다. 어촌지역에서 생산되는 다른 상품과는 달리 그 것은 어촌에서 생산돼 도시에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인들이 어촌지역을 방문, 또는 체류함으로써 어촌에서 소비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과정에서 어촌어메니티 자원소유자들은 다양한 어메니티 생산 및 유통활동(Amenity based industry)을 통해 시장공급자로 등장하게 되며, 도시 수요자들과 함께 어촌어메니티 시장참여자 그룹의 양축을 이루게 된다. 시장참여자 그룹에는 물론 어메니티와 관련해 정보생산과 유통을 담당하는 그룹이 지역 내외에서 합류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촌어메니티 시장의 형성으로 인한 이익(Benefit)과 비용(Cost)이 시장참여자 그룹 상호간에 어떻게 배분되는가의 문제이다. 이익과 비용에 있어 분배의 형평성이 유지된다면 시장참여자 모든 그룹간에 상호적 협력관계가 지속되면서 생태관광으로 인해 형성된 지역의 어촌어메니티 시장은 지역발전에 지속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면 그것은 지역사회에 갈등을 조장하고, 어촌어메니티 자원이용의 왜곡과 낭비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도시가 추구하는 어메니티와 어촌에서 추구하는 어메니티의 차이점을 알아보면 <표 2-1>와 같다.

<표 2-1> 도시Amenity와 농(어)촌Amenity의 차이점

구분	도시 Amenity	농(어)촌 Amenity
목표	포괄적인 공간의 질 상승	농(어)촌의 새로운 시장의 창출
정책대상	도시공간	농(어)촌공간 및 자원
수혜자	도시민	농(어)촌주민 및 도시민
Amenity정책 추구의 전략	·편리성 개선[5] ·환경성 회복[6] ·심미성 추구[7] ·문화성 확립[8]	·경제성 추구 ·편리성 개선 ·환경성 회복 ·심미성 추구 ·문화성 확립

자료: 전영옥, 어메니티가 도시경쟁력이다. 삼성경제연구소, 2003.

<표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시어메니티와 농어촌어메니티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어메니티의 정책을 추구함에 있어 어촌어메니티는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경제성의 추구가 첨가된다는 사실이다. 어촌은 도시와는 달리 어촌 고유의 공간과 자원

5) 브라질의 꾸리찌바(대중교통시스템), 상주시(자전거 도시)
6) 독일의 하노바(자연과의 친화성 회복), 대구시(숲에 의한 환경조절)
7) 미국의 뉴욕(경관제도를 통한 도시디자인), 양평군(자연경관보전조례)
8) 네델란드의 로테그담(문화공간의 창조), 서울 인사동(문화의 거리)

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및 개인소득의 향상을 추구해야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1-4 어촌어메니티 자원의 유형

- 자연생태자원
  ·대기질, 수질, 소음, 비오톱, 토양, 동식물
- 경관 자원
  ·해양 경관 (수평선, 이침 노을 및 일출, 일몰)
  ·산림 경관 (해송 등)
  ·주거지 경관
  ·어항 경관
- 역사문화 자원
  ·전통 마을 구조
  ·풍수지리, 전설
  ·어업공동체 활동
  ·용왕제 등 전통 무속
  ·전통 어구·어법
  ·염전

1-6 어메니티 평가지표

어촌의 어메니티를 평가하는 지표의 설정을 위해 이미 시행되고 있는 도시어메니티의 평가지표의 예를 살펴보면 <표 2-2>와 같다.

<표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시어메니티를 평가하는 지표에는 지역의 깨끗함과 조용함, 자연과의 공생 및 친근감, 지역의 아름다움과 여유로움, 지역의 역사와 문화 등의 항목이 있으나, 이를 어촌의 항목은 어촌 특유의 자연과 자원, 그리고 추구하는 목적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도시어메니티의 평가지표와는 사뭇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농어촌 어메니티는 단순한 주거 만족도 차원을 넘어서 지역 개발 수단 혹은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상품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개발, 계획 분야에서 이러한 어메니티 적용 및 평가는 상당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즉 농어촌에 있어서 어메니티란 도시민에게 특별한 체험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소득을 얻는 일종의 체험상품(experience commodity)과 같은 것이다[9], 따라서 이러한 농어촌 어메니티에는

9) Coppack, M., 1988, "Reflections on the role of amenity in the evolution of urban field", Geografiska Annaler 70B(3), pp. 353-361.

<표 2-2> 도시어메니티의 평가지표

차 원	문 항
지역의 깨끗함과 조용함	·공기의 깨끗함 ·연못과 하천의 깨끗함 ·지역의 청결함 ·지역의 조용함 ·일조 조건의 양호함
자연과의 공생(친근감)	·녹지와의 공생(친근감) ·물과의 공생(친근감) ·흙과의 공생(친근감) ·야생조류, 곤충과의 공생(친근감) ·산림의 자연성, 생태성
지역의 아름다움과 여유로움	·거리의 아름다움 ·거리의 편안함 ·레크레이션 시설의 친밀성
지역의 역사·문화	·지역의 역사와 전통성 ·지역의 문화성

자료: 이양주, "수원시 어메니티 환경의 평가와 개선 방안",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제34권 제4호, 1999.

주거 만족도와 밀접한 '생활환경' 차원을 기본으로 '역사문화성', '자연친화성' 혹은 그것에 의해 표출되는 '경관의 아름다움' 등이 중요한 차원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에메니티가 상품으로서 가치를 가지려면 도시에서 경험할 수 없는 차별화된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농어촌 어메니티에는 도시어메니티에서 보다 문화적, 역사적으로 가공된 인공적 환경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

농어촌 어메니티를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은 야생환경은 다른 어떤 환경보다 '자연친화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도 농촌 어메니티 측면에서 보면 그 가치는 농촌 정서를 자아내게 하는 인공환경 자원에 비해 낮게 평가될 수 있다[10]"고 보고하고 있다.

도시민들이 자주 방문하는 농촌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의 구체적 하위 차원들을 분석한 Palmer 등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도시민들의 이미지에는 접근성이 양호하고 잘 정비된 목가적 농촌 이미지가 더 중요한 차원이며 상대적으로 사람의 손길

10) 조영국, 박창석, 전영옥, 2002, "농촌 어메니티 인식의 구조와 의미", 한국경제지리학회지 제5권 제2호 pp. 157-174.

이 닿지 않는 외진 장소로서의 이미지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차원인 것으로 밝혀졌다[11].

이와 같이 농어촌 어메니티에 있어서 인위적 요소가 중요해짐에 따라 어메니티의 평가지표 개발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어촌 어메니티 평가지표 개발을 위하여 농촌어메니티 평가지표의 예를 들면 <표 2-3>과 같다.

2. 즐기는 어업

2-1 즐기는 어업의 개념

'즐기는 어업'이라는 의미와 동일하게 쓰여진 경우를 살펴보면, 이미 일본 등지에서는 1990년대부터 觀光漁業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었고, 그 관광어업은 국내에서도 개념정립이 없이 산발적으로 사용하여 왔다.

일반적으로 어로어업을 '잡는 어업', 양식어업을 '기르는 어업'이라는 용어가 이미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관광어업 대신 '즐기는 어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전북지역의 관광정체성을 찾는 방법의 하나로 '즐기는 어업'을 제시한 것이며, 즐기는 어업은 외부의 자본가나 개발업자에 의해 파생되는 지역특성의 무시, 환경파괴, 지역민과의 갈등 등의 부정적인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어촌의 주요 산업인 어업을 유지하면서 지역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대안어업이라고 할 수 있다.

전북은 도시와 농어촌이 어우러져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북지역의 수산업은 도시와의 연관성에서 중요한 하나의 활로를 찾을 수 있다. 그것은 수산업자가 직접 도시주민을 대상으로 행하는 활동의 한 종류로서 관광어업의 활성화를 들 수 있다.

이는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여가시간이 길어지고 고령화사회가 진행되면서 건강유지를 위해 밀폐된 공간을 떠나 개방된 자연속에서 관광을 즐기려는 인구가 늘어가고 있는 사회적 현상에 대해 기존 수산업에서 탈피한 새로운 형태의 환경대응적 경영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일본의 日高 健은 "관광어업이란 非日常의 생활권이라고 할 수 있는 해안에 가서, 혹은 선박으로 해상으로 이동하여, 어업의 조업풍경이나 해상의 경관을 봄으로써, 또는 어로작업을 보조적으로 행함으로써 즐거움을 얻는 활동"이라고 정의하

11) Palmer, C.J., Robinson, M.E. and Thomas, R.W., 1977, "The countryside image ; an investigation of structure and meaning", Environment and Planning A9, pp. 739-749.

<표 2-3> 농촌어메니티의 평가지표의 예

상위 차원	하위차원	문 항
농촌 분위기 (rural sentiment)	농업의 비중	·주위에 논밭이 많이 있다. ·주변에 농사짓는 사람이 많다 ·내세울만한 농산물 혹은 특산물이 있다.
	전통성	·마을이 유서가 깊다. ·초가, 한옥 등 옛날 가옥들이 남아 있다. ·마을 안길, 농로, 개천 등에서 옛 모습을 찾을 수있다.
	공동체 문화	·관혼상제 때나 농번기에 마을사람들이 서로 돕는다. ·사람들의 생활방식이 서로 비슷하다. ·마을제사 및 놀이 등 마을전체가 참여하는 행사가 있다. ·마을사람들이 잘 모이는 곳이 있다.
경관 (scenic attribute)	취락의 형태	·집이 많지 않다. ·소음이 적다 ·도로에서 떨어져 있다. ·집들이 흩어져 있지 않고 모여 있다. ·현대식 건물이나 시설들이 별로 없다.
	지연친화적	·공기, 물이 깨끗하다. ·자연 환경이 잘 보전되어 있다. ·여러 가지 야생 동식물, 곤충을 쉽게 볼 수 있다.
	경관미	·마을이 아늑하다. ·경치가 수려하다. ·논밭, 숲, 산, 하천 등 다양한 풍경을 볼 수 있다. ·전망이 탁 트였다. ·여유로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생활여건 (basic need)	접근성	·동네에 차량통행이 수월하다. ·도시와 멀지 않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주변도로는 넓고 잘 닦여 있다.
	편익성	·생필품을 동네서 살 수 있다. ·학교, 학원 등 교육시설이 가까이 있다.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다. ·가까운 곳에 병원이 있다.
	여과활동기회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여가시설들이 주변에 있다. ·여가 시간에 할만한 것이 있다.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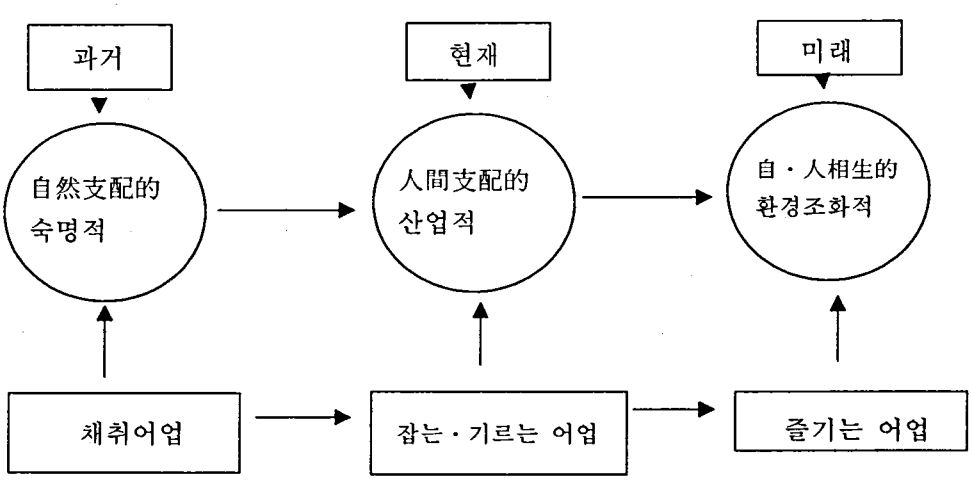
자료: 조영국·박창석·전영옥, "농촌 어메니티 인식의 구조와 의미", 한국경제지리학회지 제5권 제2호, 2002.

고 있다[12].

여기에서 관광어업이란 어로어업 및 양식어업에서와 같이 어업자가 주체가 되어 도시민들에게 어민의 고유한 직업 및 생활방식 등을 보여주고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도시와 어촌간의 교류를 촉진시켜 어민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에도 기여하는 새로운 어업의 개념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관광어업은 지금까지 어업의 범위인 '잡는 어업(Catching Fishery)'과 '기르는 어업(Farming Fishery)'의 영역을 벗어난 새로운 어업개념이라고 생각하며, 본 연구에서 말하는 '즐기는 어업(Enjoyable Fishery)' 의 개념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밝혀두고자 하며, 이를 '어로어업', '양식어업'과 함께 '관광어업'이라고도 칭하고자 한다.

이를 앞에서 언급한 어촌의 생활근저와 연관시켜 살펴보면 <그림 2-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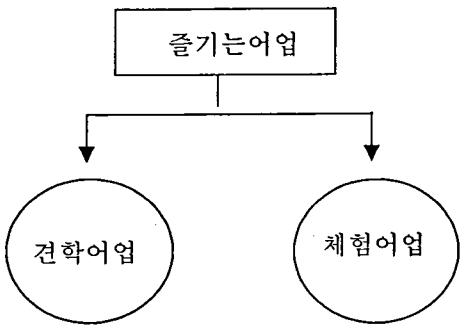


<그림 2-1> 어촌생활의 근거와 어업의 변화

2-2 즐기는 어업의 종류

앞에서 日高씨가 정의한 관광어업은 '보는 어업'과 '하는 어업'으로 구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즐기는 어업(enjoyable)을 「보는 어업(watching fishery)」과 「하는 어업(doing fishery)」으로 나누고자 한다. 이를 다시 「보는 어업」은 靜的관광어업으로서 '見學漁業'으로, 「하는 어업」은 動的觀光漁業으로서 '體驗漁業'으로 命名하고자 한다.

12) 日高 健, 都市と漁業, 成山堂書店, 2002, p.121.



<그림 2-2> 즐기는 어업의 종류

이러한 관광어업을 통해서 반복되는 일상생활로부터의 일탈감을 느끼고 인간의 기본적 욕구 중 하나인 지적욕구를 충족시키는 학습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자연환경을 체험함으로써 자연의 일부분으로 동화되고, 새로운 도전의식을 갖게 하는 등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광어업은 최근 관광의 추세인 '보상과 보람이 있는(rewarding) 관광', '몸과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enriching) 관광', '학습적인(learning) 관광' '보험적인(adventuresome) 관광' 등의 현상[13]에 맞추어 각 어촌이 실행화할 만한 분야가 아닌가 생각한다.

1) 견학어업

(1) 조업광경 견학

도시민들은 어선에 직접 승선하는 기회 자체만으로 색다른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것이며, 더욱이 해상에서 볼 수 있는 어장(정치망, 어로작업) 및 양식장(수하식, 부류식 등)에서의 다양한 조업광경 등 바다산업의 독특한 모습을 시각적으로 경험함으로써 도시민에게 정서적 안정감 및 교육적 효과 등을 가져올 수 있다. 더욱이 이러한 프로그램의 운영은 어업자들에게 숙박 및 야영시설 등의 제공으로 체류형 관광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2) 어획물 매매 견학

어촌에서 이루어지는 어획물의 매매광경은 독특한 흥미를 자아내고 있다. 특히 어획물의 매매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위판장일 경우에는 도시민들에게 호기심을 자아낼 수 있다. 매매를 하기 위해 진열된 어획물을 통해서 어획물의 종류나 특징에

13) 이광희 · 김영준, 체험관광상품 개발 활성화 방안, 한국관광연구원, 1999.

대한 교육을 할 수 있고, 어획물의 위탁판매방식에 의한 재래식 경매 및 입찰의 모습은 산업유산적 성질을 띠고 있어 매우 의미있는 교육의 현장이 될 수 있다.

(3) 수 · 해양문화에 대한 탐구학습

어촌에서의 특수한 생활양식을 소개할 수 있는 역사적인 각종 도구 및 자료, 어로용구 등을 수집하여 전시할 수 있는 어촌생활전시관, 소형박물관 등은 어촌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면서 일반시민들에게 어촌생활을 이해시키고, 바다의 중요성을 일깨울 수 있는 교육적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학습공간은 다른 관광프로그램과 연계시킴으로써 풍성하고 뜻깊은 어촌관광의 효과를 거두게 할 수 있다.

2) 체험어업

(1) 어로(양식)작업

어선에 승선하여 어업자의 작업을 견학하거나 어로작업(낚시어업, 낭장망 등)에 보조적인 작업을 체험하고, 또는 양식장에서 직접 양식물을 채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접 어업작업을 경험케 하는 "주말어장(예)'와 같은 기회의 제공은 도시민들에게 새로운 형태의 여가를 제공할 것이다. 더욱이 직접 어획한 신선하고 안전한 생산물은 값싼 가격으로 판매하는 프로그램의 운영은 도시와 어촌의 교류를 활성화시키고, 어업과 관광을 결합시킨 새로운 형태의 어업형태가 될 수 있다.

(2) 낚시대회 개최

군산지역에는 아름다운 섬들이 산재하고 있고, 지역에 따라서는 암반층이 형성되어 있어 유어낚시에 적당한 곳이 많다. 최근 여가시간의 증가와 함께 낚시인구의 상승현상을 배경으로 전국의 낚시취미를 갖고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이벤트 행사를 갖는 것도 지역의 청정한 이미지를 형성시키고, 동시에 민박업도 병행할 수 있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3) 어획물에 대한 가공처리 및 요리체험

소득수준의 향상과 먹거리의 품질지향적인 소비현상으로 건강과 위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안전한 수산물을 섭취하려는 인구가 증가하는 사회적 현상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기 위해 일반인들에게 지역수산물의 대한 올바른 상식과 정보를 현장에서 직접 제공하고, 실연(實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먹는 즐거움'과 '행하는 즐거움'을 동시에 실현시킬 수 있는 프

로그램의 개발·운영은 궁극적으로 수산물소비촉진을 통한 지역수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4) 해변 수산물채취

근로시간이 줄어들고 소득이 높아지면서 여가를 즐기려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사람들의 욕구는 대부분 미용과 건강을 증진시키려는 여가활동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활동은 자연접촉형 여가를 선호하는 경향으로 이어지면서 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장소의 하나인 해변(갯벌)이 그 체험의 무대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경향을 파악하고 해변에서 서식하는 수산물(김, 미역, 조개 등)을 채취하는 여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은 독특한 관광매력을 가질 수 있다.

5) 전통어업의 관광자원화

변화된 수산업환경과 그에 따른 정책 등으로 사라져가고 있는 전통적 어업(독살, 주목망, 낭장망 등)을 어촌에 찾아오는 관광객으로 하여금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즐길 수 있게 하고, 어획물은 현장에서 맛보게 하여 전통어업의 새로운 산업적 부활을 시도한다. 이는 하나의 산업유산으로서 보전 · 계승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항구적인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

2-3. 어촌관광과의 차이

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어촌지역의 낙후성을 극복하기 위해 한 가지 대안으로 논의되어 온 어촌관광은 어촌의 생명력의 원천인 어업을 과연 지속시킬 수 있을 것이며, 그 곳에서 살아왔던 어민(토착민)들의 삶의 터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에 봉착해왔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많은 경우에 있어서 어촌관광은 당해어촌의 외부에서 자본이 유입되어 지역의 고유의 자원, 전통, 문화와 역사를 무시한 채 어촌본연의 핵심과는 거리가 있는 外因的(exogenous) 개발이 진행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획일적인 개발로 인해 자연 파괴적인 결과가 초래된 경우가 많아 토착민들에게 장기적 입장에서 경제·사회적 편익을 가져다주지 못하고 오히려 사회적 비용만 증가시키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러한 어촌관광으로 인하여 어촌의 주요 산업인 어업(넓은 의미)이 붕괴된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어촌관광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지역주민인 어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자연자원, 산업, 문화 등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새로운 산업으로의 발전을 의미하는 內因的(endogenous) 개발의 당위성이 대두되게 되었다. 곧 어촌에서 대규모 단지조성의 획일적인 개발보다는 소규모이지만 지역성에 바탕을 두고

다양하고 개성있는 관광자원의 개발이 오히려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경향을 알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어촌은 산업적으로는 여러 가지 환경악화로 인하여 쇠퇴해 갈 수밖에 없는 기존의 어업을 관광자원화 할 수 있다면, 그의 새로운 산업으로의 탄생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논의되어 온 어촌관광을 검토해보고, 이를 새로운 시각에서 조명해볼 때, 기존의 어업을 새롭게 부활시킬 수 있는 접근방식을 '즐기는 어업'이라고 말하면서 어촌관광과의 차이를 나타내보면 <표 2-4>과 같다.

<표 2-4> 즐기는 어업과 어촌관광의 차이

구 분	즐기는 어업	어촌관광
대 상	산업적 어업	물리적 지역
자연과의 관계	자연친화적	자연괴리적
기 간	지속가능적	단기적
개발방식	내인적(endogenous) 개발	외인적(exogenous) 개발

자료: 필자작성

어촌에서 이루어지는 관광을 어촌관광이라고 할 때, 즐기는 어업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어촌관광은 자연적 관광(백사장, 바다갈라짐, 일출 · 몰 등), 산업적 관광, 문화적 관광(풍어제, 토속음식, 어선제작 등), 위락적 관광(호텔, 민박 및 캠프, 횟집, 관광유어선)으로 대별될 수 있다[14].

이와 같은 어촌관광에서 즐기는 어업은 산업적 관광자원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는 포구, 어선접안시설, 활어공판장, 수산물 채취장, 양식업 등의 수산업과 관광산업이 조화를 이루는 「제3의 어업」이라고 할 수 있다.

14) 정기환 외, 어촌지역 관광개발에 관한 연구, 농림부, 1999.

Ⅲ. 즐기는 어업의 국내외 사례

1. 국내사례

해양수산부는 어촌관광의 활성화를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15]하고 있는 것은 어촌관광의 진흥책에서 선정된 마을은 관광어업의 좋은 사례가 되고 있고, 이는 관광어업의 활성화에 좋은 기회(opportunities)를 제공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촌체험마을의 현황과 그 내용을 살펴보면 <표 3-1>과 같다.

<표 3-1> 국내 즐기는 어업의 사례

시도	마을명	주요프로그램
인천	옹진군 영흥면 내리(진두마을)	갯벌체험, 패류채취 및 시식, 망둥어 낚시, (해상경관체험)
	중구 무의동(큰무리마을)	조업체험, 갯벌체험, 바다낚시, (해양경관감상), (국사봉 등산)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선감마을)	갯벌체험, 바지락젓갈담그기, 맨손어업체험, 건각망체험, 갯바위낚시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전곡마을)	어선승선체험, 낚시유어선, 갯벌체험, 양식장체험
	화성시 서신면 제부리(제부마을)	갯벌체험, 맨손어업, 해상경관체험, 낚시유어선, 바지락가공체험
	시흥시 정왕동(오이도마을)	조업체험, 바다낚시, 갯벌체험, (주변문화유적탐방), (해양경관감상)
강원	삼척시 근덕면 장호리(장호마을)	정치망어업체험, 수산물위판, 정치망유자망조업, 야간 오징어잡이, 미역채취, 가리비양식체험, 방게잡이
	영양군 현남면 남애2리(남애마을)	바다낚시, 갯바위낚시, 정치망, (해안산책), (특산물시식)
	고성군 죽왕면 오호리(오호마을)	바다낚시, 정치망·채낚기어선승선체험, 해조류채취 및 말리기
	강원도 동해시 대진동(대진마을)	정치망·채낚기어선승선체험, 갯바위낚시, 오징어맨손잡이, (해수욕)
충남	서천군 마서면 송석리(송석마을)	양식장체험, 자하젓담그기, 조개류양식어업, 건각망어업, 갯벌탐사, (조수변화관찰)
	서천군 서면 월호리(월하성마을)	바다낚시, 양식어업, 야간횃불조업, 갯벌마사지, 건강망체험
	서천군 비인면다사리(다사리마을)	김양식체험, 어선어업체험, 바다낚시체험, 갯벌체험, 독살체험
전북	고창군 심원면 하전리(하전마을)	갯벌맨손낚시, 김·미역말리기, 장어요리체험, 축제식 낚시
	고창군 심원면 만돌리(만돌마을)	건각망체험, 후릿그물체험, 바다낚시, 김양식장체험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모항마을)	지인망체험, 정치망체험, 바다낚시, 갯벌체험, (해수욕)
전남	함평군 함평읍 석성리(석두마을)	갯벌생태체험, 정치망체험, (해수찜질), (나비축제)
	무안군 해제면 송석리(송계마을)	정치망체험, 갯벌체험, 갯바위낚시체험, 양식장체험
	진도군 임호면 죽림리(죽림마을)	주낙·채낚기체험, 해조류 채취체험, 김가공건조, (해양체험관)
	순천시 해룡면 상내리(와온마을)	조개잡이, 짱뚱어·쭈꾸미낚시, 갯벌체험, (해수찜질)
	강진군 대구면 저두리(하저마을)	어선승선체험, 조개잡이, 갯벌체험, 바다낚시, (도요지체험)
	영광군 염산면 두우리(두우마을)	조개잡이, 숭어잡이, 갯벌체험, 해수욕장, (염전체험)

15) 어촌체험마을(2004년도 12개소), 어촌민속전시관걸립(200년도 4개소), 지역특산어류전시관건립 (2004년도 1개소) 등을 추진하고 있다.

<표 3-1> 국내 즐기는 어업의 사례(계속)

시도	마을명	주요프로그램
경북	영덕군 영해면 대진리(대진 마을)	수산물위판, 어종의 성장관찰 및 영상관람, 과메기만들기, 정치망조업, 양식어업체험, 조개줍기, (스킨스쿠버)
	영덕군 축산면 경정2리(경정 마을)	대게잡이체험, 정치망체험, (스킨스쿠버), (수산자원연구소견학)
	영덕군 영덕읍 대탄리(대탄 마을)	정치망체험, 미역채취 및 건조, 은어잡이, 통발 및 호망어업체험, 소형어선노젓기, 채경어업, (스킨스쿠버)
	울진군 평해읍 거일1리 (거일 마을)	양식장체험, 갯바위낚시, (스킨스쿠버), (온천욕), (유적지탐방)
경남	남해군 설천면 문항리 (문항 마을)	원시돌발어업, 낚시유어선, 갯바위낚시, 갯벌맨손체험
	고성군 하일면 동화리(동화 마을)	굴양식체험, 정치망체험, 갯벌체험, (공룡전시관견학)
	남해군 창선면 당항리(냉천 마을)	갯벌체험, 각망어장체험, 야간횃불조업, 바다낚시
	통영시 욕지면 서산리(유동 마을)	정치망·자망체험, 해조류말리기, (패총체험), (해상경관감상)
	거제시 남부면 갈곶리 (도포장마을)	멸치건조, 조개잡이, 갯바위낚시, (유적지탐방), (해수욕)
부산	강서구 대항동(대항 마을)	육소장망숭어잡이, 호망대구잡이, 김양식장체험, 갯바위낚시
제주	북제주군 한경면 고산리 (고산마을)	트롤링어업, 한치오징어 말리기, 트롤링, 야간배낚시, 갯바위낚시
	남제주군 남원읍 위미1리 (위미마을)	바다낚시, 갯바위낚시, 해안가바릇잡이, (스킨스쿠버)
	서귀포시 하예동(하예 마을)	어선승선체험, 바다낚시, 조개·보말줍기, (스킨스쿠버)
	서귀포시 강정동(강정 마을)	어선승선체험, 정치망체험, (해양경관감상), (해활현상체험)

주: ( )는 어촌어메니티와 관련이 있는 것.

자료: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2004.

2. 국외(일본)사례[16]

1) 日本 長岐縣 石田町漁協의 도미망 체험어업

도미망(선인망)[17]이란 에도시대부터 1981년까지 계속된 어업으로서 이전에는 한 망당 수백kg의 도미가 어획되었으나 최근에는 경영상의 채산성이 맞지 않아 중지된

16) 수협수산경제연구원, 지방화시대의 신어촌운동을 위한 어촌지역 활성화 사례집, pp. 16-105, 1995.

17) 50여명이 목봉과 같은 위협도구를 사용하여 근해에서부터 도미군을 추격하여 연안에 이르렀을 때 그물로 포위하여 잡는 어법이다. 여기에 사용되는 어선은 지휘선 1척, 망선2척, 추격역할을 하는 배 10여척이 선단을 이룬다.

어업이었으나, 1989년에 관광업과 연결되어 8년만에 부활되었다.

町내의 어업자들로부터 '전통적인 어법인 도미망어업을 경험자가 생존해 있을 대, 젊은 사람들에게 계승'하자는 주장이 대두되면서 町의「故鄕蒼生事業」의 일환으로 조합원들은 도미망조합을 조직하고, 관광어업으로 부활시켰다.

2) 日本 福井縣 美병町 낚시센터

각 어업자가 소유하는 어선을 소속선으로 하여 유어자의 수에 따라 승선출어하며, 외줄낚시에 의한 야간 오징어, 전갱어, 도미, 보리멸낚시, 감성돔 뗏목낚시 이외에도 겨울철 호수면에서 빙어낚시 등 다양한 遊漁를 통하여 관광어업을 중요한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3) 日本 茨城縣 北茨城市 民泊協會 정치망 관광선 운영

5톤정도의 어선에 승선하여 연안(약 2㎞)의 정치망어장에 도착하여 선상에서 정치망어업을 직접 보고 정어리, 도미, 농어, 날치 등의 살아있는 고기를 잡는 즐거움을 맛본다.

4) 日本 德島懸 北難漁協 靑壯年部 소형저인망 고기잡이

어항에서 어선을 나누어 타고 저인망, 혹은 참돔의 소형정치망에서 어획된 수산물을 육상에서 조리해서 먹거나 포장하여 집으로 가져가게 한다[18]. 어업현장을 목격한 적이 거의 없는 관광객들은 어선에 동승하여 친교를 나누고 어획하는 상황을 직접 자신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한다.

5) 일본 千森縣外川 漁協 수산교실운영

중학생을 대상으로 수산고교 선생님들에 의한 기초적인 교과 외에, 지역어협청년부에 의한 물고기의 습성을 이용한 어구의 작성, 사용방법 등의 실습과 병행하여 어업조사선에 체험승선하여 최신 항해계기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이들 기구의 조종조작의 체험과 부근에서 조업중인 어선의 조업실태를 관찰하고, 현이나 시의 수산업현황과 시책, 조합운영 등에 대해서도 강의를 받는다.

6) 일본 三重縣 鳥羽市 어로용구 보존시설

어로용구, 어촌생활도구, 항해용구, 어촌문서 등 어촌생활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수집·전시하여 관광객들에게 지적호기심을 자극한다. 전시 이외에 조사활동을 별여

18) 독일의 Fedderwardersiel에서는 관광객들에게 새우껍질까기 대회를 개최하고 집으로 가져갈 수 있게 한다.

『縣內의 수산도감』, 『海의 도감』, 『海와 인간』 등의 책자를 발간하여 일반시민들에게 어촌생활을 이해시키고 바다의 중요성을 일깨워 수산진흥에 시민들의 동의를 구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7) 일본 富山縣 魚食普及協議會 여학생 바다고기 요리교실

1985년 어업협동조합, 수산물도매시장, 수산물가공협동조합 등이 참여하여 富山魚食普及協議會를 결성하고 일반 소비자나 여학생을 대상으로 바다고기 요리교실을 개최하여 수산물 섭취 보급운동을 벌이고 있다.

8) 일본 長崎縣 鹿町町漁協 주말가족 양식사업

주말에 소비자를 양식장에 초대하여 자연을 즐기면서 견학이나 체험을 느끼게 한다. 마을의 진주와 양식어의 소비를 확대하고 관광진흥을 목적으로 양식돔과 양식진주의 소유주가 되는 구좌를 팔고 있다. 또한 관광선으로 양식장을 견학하고 선상에서 점심 식사회, 돔 치어의 기념 방류사업도 동시에 실시하여 수산업을 관광객에게 이해시키고 있다.

Ⅳ. 전북지역 즐기는 어업의 활성화 방안

1. 문제점

관광어업의 활성화라는 시각으로 전북지역의 어촌에성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관광사업을 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표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북지역의 즐기는 어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즐기는 어업을 실시하고 있는 곳은 고작 3곳에 불과하다. 이는 지금까지 어촌의 관광개발형태가 축제의 개최[19]에 치우쳐 있고, 즐기는 어업개발을 소홀히 해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현재 시행중인 즐기는 어업의 형태를 보더라도 체험어업

19) 군산 수협 전 어촌계의 쭈꾸미 축제, 군산 비응도 어촌계의 전어축제, 부안 진서 어촌계의 곰소 젓갈축제, 부안 격포 어촌계의 격포 쭈꾸미 축제, 고창 수협 전 어촌계의 고창수산물축제 등이며, 군산 장자도 어촌계에 조성될 어촌체험마을의 계획을 보면, 수변광장, 다목적운동장, 극기훈련장, 청소년수련원, 해양문화전시관, 자연학습체험장, 천체관측소, 야외무대, 야영장, 조경휴게지, 휴게광장, 쉼터 등의 조성으로 되어 있어 관광어업의 개발이 상대적으로 매우 빈약함을 볼 수 있다.

중의 하나인 갯벌체험에 주로 국한되고 있는 점은 앞으로 즐기는 어업의 개발에 대한 조사 및 그 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현재 전북도와 군산시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고군산군도 국제해양관광단지조성계획[20]을 살펴보면, 도입시설에는 숙박시설, 상업시설, 레포트센타, 컨벤션센타, 카지노, 마리나, 민박촌, 해수욕장, 요트장, 관광유람선 등이고, 검토시설에는 테마공원, 골프장, 민속촌, 수족관, 노인휴양촌, 관광농원, 청소년수련원, 연수원, 삼림욕장, 자연학습원, 수영장, 자동차야영장, 승마장, 공연장 등이다. 이러한 계획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어촌 고유의 산업과 특성을 살린 자연친화적인 사업보다는 도시의 상업적 시설을 어촌이라는 지역공간에 일방적으로 건립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의도가 매우 짙다. 이는 앞에서 지적한 어촌 고유의 어메니티 및 삶의 방식을 오히려 파괴하는 현상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2. 활성화 방안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어촌 고유의 특성을 살린 관광사업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강구되어져야 한다.

1) 지역관광의 정체성 확립.

지역의 즐기는 어업의 활성화는 지역관광의 정체성(Identity)을 확립하는 기초적 작업이 중요하다. 전국적으로 많은 어촌에서 실시하는 어촌관광의 획일적인 콘텐츠(Contents)로서는 전북어촌만의 정체성을 찾기 어렵다.

따라서 전북지역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즐기는 어업의 형태를 경유형, 체류형, 주거형 등으로 나누고, 그러한 정체성을 바탕으로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지속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어촌만이 가지고 있는 유용자원인 해양성기후, 해수, 해저진흙, 갯벌, 바다의 동식물 넉넉한 자연 등을 활용하여 연중 관광지화 내지는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복지증진이나 어촌지역 인구의 증진책으로 '건강과 휴양의 어촌'을 추진해볼만하다.

전북지역의 고유한 정서와 환경을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건강과 휴양의 어촌'을 지역정체성으로 삼는다면 어촌의 쾌적성(Amenity)의 향상과 함께 살고 싶어 모여드는 어촌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

20) 전라북도, 국제해양단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1998. p.88.

2) 지역별 '즐기는 어업'의 개발

어촌을 유지 · 발전시키는 에너지원으로서 어촌계가 자리잡고 있다. 각 어촌계는 기존의 어업의 쇠퇴에 따른 대체어업으로서 각 지역특성을 살린 즐길 수 있는 어업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예를 들면, 고군산군도는 종래 낭장망 어업이 성행했던 유명한 곳이다. 그러나 정부에 의한 어업구조조정사업의 일환으로 낭장망어업은 어업의 한 종류로서 사라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 어업인 낭장망어업에서 하루 2차례씩 이루어지는 '물보기' 등을 체험케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어획물은 직접 요리하게 하거나 제공한다면 좋은 지역상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왕등도 주변해역은 해양환경이 낚시어업이 성행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근 낚시인구의 증가[21]에 따라 적극인 낚시어장의 개발과 함께 낚시공원(Leisure Fishing Park)을 조성하여 최근 강한 성향을 보이고 있는 가족단위 등의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단체중심의 낚시어장의 개발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전국적인 낚시대회를 개최하여 지역마케팅(Community Marketing)을 조직적으로 실행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이러한 낚시어장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어초투하사업·방류사업·종묘배양사업 등의 인프라사업이 관·학·민에 의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문헌 및 구술에 의하면 전북지역에도 원시적인 고기잡이 형태인 독살에 의한 어업행위가 많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그런 어획방법도 하나의 산업유산으로 지정되어 견학어업이나 체험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각 어촌계 특유의 어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1 어촌계 1 관광어업' 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져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개발→보전→활용의 단계를 충실히 지킴으로서 블루투어리즘(Blue Tourism)의 핵심을 차지하면서 부수적 관광효과를 더불어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3) 1日 수산학교의 운영

어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즐기는 어업을 위시해서 어촌관광의 형태가 거의 경유형이 많아 어촌의 입장에서는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를 체류형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학습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기존의 폐교 등을 이용해서 주말 또는 휴일에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다양하고 체계적인 즐기는 어업의 학습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은 도시민들의 지적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즐기는 어업의 정착화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를 실행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어업인, 지방자치

21) 2000년도 낚시이용객은 1,042회에 걸쳐 8,368명(출항신고소 자료)였으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단체, 수협, 학교(대학) 등의 유기적인 협조와 조직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어촌어메니티 개선과의 연계

어촌지역은 어업문화 이외에 다양하고 독특한 역사와 문화를 간직하고 있다. 이러한 어촌의 역사문화성은 어촌어메니티를 개선시킬 수 있으며, 그에 대한 하나의 수단으로 에코뮤제[22]의 추진이 요구된다.

에코뮤제의 기본적인 요소인 박물관의 경우,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박물관의 유치활동도 중요하지만 지역민들의 어촌생활에서 갖고 있는 각종 역사·문화재적 유물을 한군데 모아 전시하는 것도 훌륭한 박물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관광객을 맞을 수 있는 민박집이나 식당 등에서도 오래된 생활용품 등을 전시해 놓으면 위성박물관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것이다. 거기에 어촌생활 이외의 지역문화재, 즉 고창의 고인돌지역, 부안의 변산반도, 고군산군도의 설화와 무속, 그리고 역사·문화적 현장[23] 등을 둘러볼 수 있는 산책로(discovery trails)를 만들어 놓는다면 자연의 원시성이 바탕이 된 상태에서 즐기는 어업의 프로그램과 함께 관광객들의 지적욕구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학습관광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5) 도시와 자매결연 및 회원제의 도입

도시민들은 도시의 공해와 인심의 황폐화, 과밀 등을 탈피하여 시골에서 전원적이고, 여유로움을 찾고자 하고, 반면에 도서주민들은 과소화, 지역경제의 부진 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도시의 경제력에 의존하고자 한다. 이러한 상호간 니즈(needs)의 존재에 따라 어촌학교↔ 도시학교, 어촌마을↔도시마을, 어촌단체↔도시단체 등이 상호교류를 통해서 이질적인 환경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어촌친척제도」를 도입하여 더욱 친밀한 관계설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정한 수의 회원제의 도입은 과잉수요의 비경제효과를 방지하고 소비자관계 마케팅을 추진할 수 있어 즐기는 어업의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

---

22) 1960년대 프랑스에서 지역경제를 재건하기 위해 자연공원의 문화시책으로 탄생하였다. 에코뮤제의 구조는 그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territory), 지역에 존재하는 다양한 유산을 배우는 기능을 갖고 있는 복수의 독립적인 위성박물관(satellite museum), 에코뮤지움의 본부라 할 수 있는 중심박물관(core museum), 그리고 지역의 자원과 유산을 발견하는 길로 위성박물관에 부속하여 꾸며져 있는 발견의 길(discovery trails) 등을 들 수 있다.

23) 예를 들면, 고군산군도의 청동기시의 조개무덤, 송산행궁(외국사신 영접소), 수군기지, 이순신 장군의 일시체류지, 무녀도 초분 등.

을 것이다.

3. 기대효과

어촌의 어메니티를 향상시키고 관광어업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경제사회적 효과는 어촌측과 도시측에서 모두 찾아볼 수 있다.[24]

먼저 어촌측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첫째, 지역산업의 다양화[25]에 따른 어업수입의 향상이라고 하는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도시민들과의 人的인 교류를 통해서 정신적인 안정감과 수산물가격 또는 수산물선호 등 도시민들의 수산물소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둘째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함으로써 유통의 개선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직거래형태는 기존의 시장을 통하지 않고 새로운 유통경로를 형성하여 많은 유통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셋째는 증가하는 해양성 레크레이션과의 조화를 통한 어업외 활동으로 어촌계의 수익사업을 증가시킬 수 있다. 관광어업은 그 자체로서만 존재하기는 매우 힘든 현실적인 문제가 있으므로 어업이외에 수상스키, 수상요트 등의 마리나(Marina)사업과의 조화는 어업인들에게 무시할 수 없는 수익사업이 될 수 있다.

넷째, 어업의 생산시설인 어항은 향후 관광접목형으로 개발되고 있으므로 어항 주변의 낚시는 물론 일반도시민들의 왕래가 적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어항시설은 「도시의 광장」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 어촌의 활기를 되찾을 수 있다.

도시측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첫째, 도시민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생활상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 정신적인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어촌에서 먹고, 놀고, 배우고, 편안한 감정을 누릴 수 있어 이를 통해 생활의 재충전효과를 얻을 수 있다.

둘째, 도시지역차원에서는 신선한 수산물의 값싼 구입을 비롯해서 어촌 어항 등의 용이한 접근과 개방을 통해서 환경, 문화가 있는 도시어메니티를 향상시킬 수 있다.

셋째, 어촌과 도시의 인적 교류는 개인적 네트워크(Social Network)차원을 넘어 사회적 커뮤니티(Community)를 형성시킬 수 있다. 이로 말미암아 종래 폐쇄적인 어촌과 도시의 정서를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커뮤니티가 형성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지역간의 교류는 상호 다른 지역자원의 발견과 활용을 통해서 소득이 증가하는 경제적 효과는 물론 사회적 정신적인 비경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무엇

24) 日高 健 , 都市と 漁業, 成山堂書店, 2002, pp.86-87.
25) 체험어업, 수산물의 현장판매, 용선료 등의 수입이 있을 수 있다.

보다도 강조되는 점은 어촌과 도시간의 인적 물적 교류는 쇠락해가는 어촌의 지역 시스템에 도시의 에너지가 유입되어 그를 유지시켜 나가는 원동력의 한 수단이 된다는 점이다.

V. 맺는말

지금까지 전북지역의 어촌어메니티와 즐기는 어업의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우선 어메니티라는 개념은 이미 우리나라의 도시 및 농촌분야에서 많이 도입되어 실행되고 있으며, 그의 개선책이 커뮤니티 마케팅(Community marketing)의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어촌에 어메니티의 개념을 언급한 예는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언급된 어촌 어메니티의 개념은 단순히 도입하고자 하는 선언적 의미만을 가지고 있고, 어촌에 어메니티의 개념을 어떻게 도입 · 실행 · 평가하는지에 대한 과정은 본 연구에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를 향후의 연구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또한 '즐기는 어업'이라는 용어도 본 연구에서 처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거의 비슷하게 사용되고 있는 개념인 '관광어업'이라는 용어는 이미 산발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학문적 접근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서 이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근래들어 수산자원의 감소, 어업경영의 악화, 어업인의 고령화 등으로 어촌사회가 침체의 일로를 걷고 있는 작금의 어두운 현실에서 한가닥의 빛줄기를 찾아보려 했다. 곧 어촌의 어메니티를 개선시키고, 제3의 어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즐기는 어업을 활성화한다면 우리의 어촌은 또 다른 차원에서 다시 생기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이에 대한 민·학·관 공동의 체계적인 접근과 시행을 기대해 본다.

참 고 문 헌

김승환, 변문기, “쾌적한 도시 환경 창출을 위한 도시 어메니티 구조의 해석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제18권 제4호., 1991

김준영, "사회친화적 도서관광의 전개방향에 관한 연구", 경영학석사 학위논문, 부경대학교 대학원, 2002.

이양주, “수원시 어메니티 환경의 평가와 개선 방안”,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제34권 제4호, 1999,,

장병권, "지속가능한 해양관광 개발방안 - 고군산군도를 중심으로-", 문화관광연구 제4권 제1호, 한국문화관광학회, 2002.

전영옥, “농촌 활성화를 위한 농촌 어메니티 정책의 방향”, 삼성경제연구소. 2003,

전영옥, "문화자원개발과 지역활성화 전략", 삼성경제연구소, 2004.

전영옥, "어메니티(Amenity)가 도시경쟁력이다", 삼성경제연구소, 2003.

전영옥, "도시어메니티의 개선과 기업의 대응", 삼성경제연구소, 2003.

조영국, 박창석, 전영옥, “농촌 어메니티 인식의 구조와 의미”, 한국경제지리학회지 제5권 제2호, 2002.

Coppack, M., "Reflections on the role of amenity in the evolution of urban field", Geografiska Annaler 70B(3), 1988,

Palmer, C.J., Robinson, M.E. and Thomas, R.W., 1977, "The countryside image ; an investigation of structure and meaning", Environment and Planning A9,

日高 健, 都市と漁業, 成山堂書店, 2002,